‘Heat-not-burn 담배 (가열담배)’에 대한 대한금연학회의 입장문

이철민^{1*} · 이성규² · 김성렬³¹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²국가금연지원센터³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The Position Statement on Heat-not-burn (HNB) Tobacco Products of the Korean Society on Nicotine and Tobacco (KSRNT)

Cheolmin Lee^{1*}, Sungkyu Lee², Sungroul Kim³¹Healthcaresystem Gangnam Center, ²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Seoul, ³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Korea

접수일 : 2018년 4월 30일

수정일 : 2018년 5월 8일

승인일 : 2018년 5월 18일

*교신저자 : 이철민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 06236

Tel: 02-2112-5668

Fax: 02-2112-5794

E-mail: bigbangx@snuh.org

Copyright © 2018 b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새로운 담배의 등장

궐련(cigarette)이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던 국내에, 2017년 6월 아이코스(iQOS)라는 새로운 담배 제품이 출시되면서 기존 흡연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품은 특수하게 제작된 담배를 배터리로 열을 가할 때 발생하는 기체를 마시는 형태이다. 외국에선 heated tobacco product (HTP), heat-not-burn tobacco (HNB) 등으로 불리고, 국내에선 궐련형 전자담배, 찌는담배, 가열담배 등으로 불리고 있다.(이후 가열담배로 통칭함) 이후 글로(Glo), 릴(Lil) 등의 제품이 다른 담배 회사에서 출시되었는데, 담배회사들은 가열담배가 기존 담배와 달리 건강상 덜 위험하다거나,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자체적

으로 시행한 연구를 근거로 가열담배가 기존 담배에 비해 독성물질이 적어 인체에 덜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열담배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한금연학회는 우리 국민이 가열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가열담배 용어의 문제

“현재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용어를 ‘가열담배’로 바꿀 것을 권고한다. 가열담배를 현행법상 ‘전자담배’로 분류하고 있으나 가열담배와 전자담배는 엄연히 다른 제품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전자장치를 사용하는 담배제품”을 ‘전자담배’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 가

열담배를 전자담배 정의 내 “궐련형 전자담배”로 분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가열담배가 기존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다.

담뱃잎, 줄기 등에서 추출한, 그리고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 액체를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담뱃잎을 직접 사용하는 가열담배는 전혀 다른 제품이다.

대한금연학회는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로 명명되는 것을 “가열담배”라는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가열담배는 궐련보다 안전한가?

“가열담배가 기존 담배에 비해 90% 더 안전하다는 담배 회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담배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은 독립적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열담배 제품인 IQOS에서 담배의 주요 독성물질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3)

IQOS 사용 후 급성 호산구성 폐렴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4)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은 그 농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양-반응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농도 비교에 따른 기계적인 해석은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 증 등의 심혈관질환은 아주 낮은 독성 농도에서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그림 1) (5,6)

담배의 위해성은 담배 한 개비의 성분이나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양에 의해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인식과 태도,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 국민 전체와 우리사회에 미치는 위해와 파급효

과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가열담배는 간접노출 위험이 없는가?

“가열담배는 배출물(연기 혹은 에어로졸)에 의한 간접노출 위험이 없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열담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위해 물질의 노출이 여전히 존재하고, 가열담배에서 배출된 미세 입자의 상당량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의 폐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7)

가열담배의 기체 성분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다양한 수준의 위해물질이 발견되는 만큼,(1,3) 이로 인한 위험이 없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가열담배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하는가?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은 건강에 위험하며, 가열담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열담배를 담배제품으로 규제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가열담배는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근거로 다른 담배제품과 동일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담배회사들은 가열담배의 구조가 기존 궐련과 다르기 때문에 궐련과는 차별된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는 가열담배 역시 다른 담배제품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8) 따라서 가열담배는 FCTC를 근거로 규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 상 전자담배 역시 궐련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가 현재 가열담배를 ‘궐련형 전자담배’로 분류하고 있지만 가열담배에 대한 규제는 기존 궐련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담배 포장에 부착되는 경고그림과 세금의 경우 궐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열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세금을 현행 궐련 대비 90% 수준에서 궐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또한 경고그림 역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전자담배에 부착되는 현행 주사기 이미지 대신 효과적인 경고이미지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담배회사들은 최근 가열담배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활동에 대

Figure 1. Dose-response relationship between number of cigarettes smoked per day and relative risk of ischemic heart disease.(6)

한 모니터링 및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열담배 사용을 위해 구입하는 전자기기의 경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가격할인과 같은 판촉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열담배 전자기기를 흡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전자기기 역시 담배로 분류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5. 대상자별 권고

1) 정부를 위한 권고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명칭 대신 가열담배로 조속히 변경하여야 하고, 담배회사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가열담배 흡연자들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2) 의료인을 위한 권고

가열담배를 금연이나 감연을 목적으로 흡연자에게 권고하지 말아야 한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게는 효과가 입증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3) 현재 흡연자를 위한 권고

가열담배가 기존 담배보다 건강에 덜 위해하다는 근거가 현재로써는 없다. 또한, 어떠한 형태의 담배제품도 건강에 덜 위대한 것은 없으므로, 흡연자는 건강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비흡연자를 위한 권고

가열담배가 기존 담배보다 건강에 덜 위해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시도하지 말아야 하며, 가열담배에 의한 간접 흡연 노출 또한 피하도록 해야 한다.

6. 입장문 (요약)

현재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용어를 ‘가열담배’로 바꿀 것을 권고한다. 가열담배를 현행법상 ‘전자담배’로 분류하고 있으나 가열담배와 전자담배는 엄연히 다른 제품이다.” 가열담배가 기존 담배에 비해 90% 더 안전하다는 담배회

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열담배는 배출물(연기 혹은 에어로졸)에 의한 간접노출 위험이 없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은 건강에 위험하며, 가열담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열담배를 담배제품으로 규제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가열담배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다른 담배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2018년 1월 2일

대한금연학회

References

1. Auer R, Concha-Lozano N, Jacot-Sadowski I, et al. Heat-Not-Burn Tobacco Cigarettes: Smoke by Any Other Name. *JAMA Intern Med.* 2017; 177(7): 1050-1052. 10.1001/jamainternmed. 2017.1419
2. Bekki K, Inaba Y, Uchiyama S, et al. Comparison of Chemicals in Mainstream Smoke in Heat-not-burn Tobacco and Combustion Cigarettes. *J UOEH.* 2017; 39(3): 201-207. 10.7888/juoe.39.201
3. Farsalinos KE, Yannovits N, Sarri T, et al. Nicotine delivery to the aerosol of a heat-not-burn tobacco product: comparison with a tobacco cigarette and e-cigarettes. *Nicotine & tobacco research: official journal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2017. 10.1093/ntr/ntx138
4. Kamada T, Yamashita Y, Tomioka H. Acute eosinophilic pneumonia following heat-not-burn cigarette smoking. *Respir Case Rep.* 2016; 4(6): e00190. 10.1002/rcr2.190
5. Song YM, Cho HJ. Risk of stroke and myocardial infarction after reduction or cessation of cigarette smoking: a cohort study in Korean men. *Stroke.* 2008; 39(9): 2432-2438. 10.1161/STROKEAHA.107.512632
6.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ow Tobacco Smoke Causes Disease: The Biology and Behavioral Basis for Smoking-Attributable Disease: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How Tobacco Smoke Causes Disease: The Biology and Behavioral Basis for Smoking-Attributable Disease: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Atlanta (GA)2010.
7. Protano C, Manigrasso M, Avino P, et al. Second-hand smoke generated by combustion and electronic smoking devices used in real scenarios: Ultrafine particle pollution and age-related dose assessment. *Environ Int.* 2017;107:190-195. 10.1016/j.envint.2017.07.014
8.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eat-Not-Burn tobacco products information sheet. 2017; http://www.who.int/tobacco/publications/prod_regulation/heat-not-burn-products-information-sheet/en/. Accessed 20 Nov, 2017.